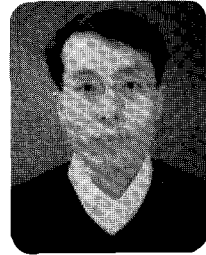


도서관인의 명암(明暗)

도서관도 이제 도서관의 친구 (Friends of the Library)가 필요하다



김영석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y9s9kim@hanmail.net

도서관의 친구는 누구인가?

도서관의 친구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역주민들, 학교 및 대학도서관의 경우 그 도서관과 관련 있는 사람들 즉, 학생, 교사 혹은 교수, 학부모, 동문, 은퇴교수들, 그리고 국가도서관의 경우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도서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목적으로 만든 모임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친구는 더 없이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다. 친구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고민이 있을 때 귀 기울여주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기도 한다.

도서관의 친구는 도서관을 자신의 또 하나의 친구로 만든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각종 행사가 열릴 때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도서관을 물질적 혹은 경제적으로 돕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내용을 홍보한다. 또한 도서관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서관을 대신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도서관 정책 결정자를 상대로 로비를 한다. 그리고 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른 도서관 이용자 혹은 일반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도서관 경영자나 사서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들 그룹과 수시로 만나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 개선점 그리고 도서관의 친구가 도서관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논의한다.

도서관의 친구 외의 다른 '친구' 들

도서관의 친구 외에 다른 '친구' 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에는 'OO의 친구' 라는 단체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현상은 서구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관심사와 관련된 다양한 단체들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 국가들에는 도서관의 친구와 같은 '친구(Friends)'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후원회 조직들이 많이 있다. 도서관의 친구가 도서관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면 다른 기관, 건물, 장소,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친구' 가 있다. 이들 '친구' 그룹들은 돕는 대상은 달라도 돕는 방법은 대체로 도서관의 친구와 동일하다.

이를 통해 볼 때 도서관의 친구의 활동은 도서관만의 독특한 특징이 아닌 사회 전반의 현상을 잘 보여준다. 즉, 서구의 선진 국가에서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다양화되고 발전함에 따라 시민사회도 함께 성숙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후원회, 자원봉사 및 자선단체 등 각종 시민단체들을 만들어 자신들의 이익 혹은 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서관의 친구의 출현은 이러한 성숙된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서관의 친구 외의 다른 '친구'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단체들이 있다.

- 박물관의 친구 (Friends of the Museum)
- 지구의 친구 (Friends of the Earth)
- 공원의 친구 (Friends of the Park)
- 교회의 친구 (Friends of the Church)
- 성당의 친구 (Friends of the Cathedral)
- 공항의 친구 (Friends of the Airport)
- 축제의 친구 (Friends of the Festival)

도서관의 친구의 출현 및 주요 활동 5가지

우리나라 사람에게 낯선 도서관의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여러 도서관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Murison(1979)과 Wallace(1968)에 의하면 도서관의 친구는 1세기 전인 1900년대 초부터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공공도서관과 국립도서관에서 최초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이 단체의 활동은 미국에 전해져서 그 활동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 미국에서 처음 이 단체는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다. 그 후 공공도서관과 학교 및 대학도서관 그리고 국립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에도 전해지게 되었는데, 현재는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편, 도서관의 친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활동을 주로 한다.

- 기금모금 (Fund-raising)
- 자원봉사 (Volunteering)
- 홍보활동 (Public Relations)
- 캠페인 및 로비활동 (Campaigning or lobbying)
- 지역주민 연계활동 (Community involvement)

이 활동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기금모금: 모임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도서관 행사를 돕는 등 도서관을 물질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 기금을 모금한다.

둘째, 자원봉사: 회원 중에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무보수로 도서관 일과 사서 업무를 돕는다.

셋째, 홍보활동: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이용하여 도서관의 중요성, 도서관 프로그램, 도서관의 친구 활동 및 행사 등을 이용자와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린다.

넷째, 로비활동: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자인 교육위원,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을 상대로 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결과적으로 도서관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거나 증액을 유도한다.

다섯째, 지역주민연계: 지역주민을 상대로 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각종 도서관 서비스 내용 및 도서관의 친구 활동을 소개한다.

운영을 위한 조직 및 회칙

도서관의 친구를 활발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모임을 이끌어갈 임원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총무, 행사부장, 회원관리부장, 기금모금부장, 기타 필요한 활동을 담당할 임원 등 5-6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원진에는 그 지역의 유지를 예를 들면, 연예인, 선생님, 교수, 예술가, 정치인 그리고 사서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영국 중부의 작은 도시 샌드웰(Sandwell, 인구 29만명)에는 1개의 중앙도서관과 18개의 분관이 있다. 이 지역은 영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19개의 모든 도서관에 도서관의 친구가 조직·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19개 도서관의 친구 중 3개 그룹의 회장은 이 지역 기초의회 의원이 맡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공공도서관 관장이 도서관의 친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서관의 친구와 도서관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 도서관의 친구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 지역 의회의원들은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절대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 확실하다.

한편, 모임의 운영과 방향을 잡고 활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 회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회칙에는 모임의 목적과 목표를 밝히고, 회비 징수 여부 등 구체적인 활동 사항들을 포함시킨다.

도서관의 친구의 지역 및 전국 연합

한 지역에 여러 개의 도서관의 친구들이 활동하고 있다면 이들 단체들을 지역단위로 묶어 하나의 지역연합조직(regional organization)을 만들고, 다시 이 지역연합 조직들을 전국적인 연합조직으로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서관의 친구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혹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도서관 캠페인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도서관의 친구를 하나로 묶고, 새로운 그룹의 조직을 지원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도서관의 친구 전국 조직(연합회)'을 설립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그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제49권, 제3호(2008. 3.): 19쪽>과 <도서관매일링리스트 글번호: 18590(2008. 7. 30.)>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의 도서관의 친구 활동 현황

도서관의 친구는 100년이라는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나라에 소개되어 있지 않다. 현재 도서관의 친구가 활동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10여 개 국인데, 주로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국가들이다. 이들 영·미권 국가들에서의 도서관의 친구의 활동은 그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소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활발하고, 앞으로 그 운영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세계 도서관의 친구의 활동 현황은 미국에 3,000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스페인, 아이슬란드, 칠레, 일본, 인도네시아 등 세계 10여 개국 이상에 조직되어 있다. 이들 국가 중에서 미국에서의 활동이 가장 조직적이고 활발하다. 도서관의 친구는 모든 관중에 걸쳐 조직되어 있지만 특히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영국 셰필드시 '워클리도서관의 친구' (Walkley Library Action Group)¹⁾

인구 52만명의 영국 셰필드시에는 1970년대 초까지 36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었다. 그런데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영국의 국가 경제 위기로 인해 1990년대 중반까지 영국 전역에 걸쳐 500여개의 공공도서관이 문을 닫았

1) 위의 4.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국 '도서관의 친구'는 종종 'Friends of the Library'가 아닌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다. 셰필드시도 이 기간 동안 10여개의 공공도서관을 폐관시켰는데, 워클리도서관도 셰필드시에 의해 폐관 위기에 처한 도서관이었다.

‘워클리도서관의 친구’는 1993년 셰필드 시의회의 워클리도서관 폐관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시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시민 단체이다. 이 도서관의 친구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외의 다른 주민들과 힘을 모아 시의회를 상대로 도서관 지키기 캠페인을 벌여 도서관을 지켰다.

그 후 도서관의 친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도서관을 돕고 있다. 도서관의 친구는 커피모닝(Coffee Morning)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금을 모아 대출·반납 카운터, 책, 의자, 블라인드 등을 구입해 도서관에 기증하였다. 도서관의 친구 임원들은 3개월에 한 번 씩 도서관책임자(분관장)와 만나 책임자로부터 그 동안의 도서관 운영 및 다음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도서관을 도울 것인가를 함께 상의 한다.

도서관의 친구는 일주일에 두 번씩(수, 금요일 아침) 도서관 열람실에서 커피모닝을 주관 한다. 커피모닝은 지역주민 혹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 내의 열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비스킷을 먹으면서 이웃주민과 다른 이용자 그리고 사서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다. 사람들은 이 모임에 참석하여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고 자리를 뜰 때 한아름의 책을 빌려 간다. 도서관의 친구는 이 활동을 통해서 기금을 모으고 사람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는다.



‘워클리 도서관의 친구’ 회원 한 분이 도서관의 어린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행사의 하나로 산타클로스로 분장한 모습

○ 우리나라 도서관의 친구 활동 현황

우리나라에 도서관의 친구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3년이다. 필자는 2003년 4월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영국 공공도서관 슬라이드 강연회’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사서들에게 도서관의 친구를 소개하였다. 또한 필자는 2004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전국도서관대회²⁾에서 도서관의 친구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실로 2005년 2월 서울시 광진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광진정보도서관의 친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정식으로 조직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그룹은 이후 2006년 9월에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친구가 설립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이들 두 그룹 외에 지난 3~4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20여개의 도서관의 친구가 설립되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그룹이 설립되었다.

2) 이용훈. 2003. 영국 공공도서관 슬라이드 강연회. 『도서관문화』, 44권 2호: 163-164.

3) 김영석. 2004. 도서관의 친구, Friends of the Library. 제42회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 배포자료.

맺는 말

도서관의 친구는 지난 1세기동안 도서관을 지원하고 지켜오는 등 도서관과 함께 해온 말 그대로 도서관의 '친구'이다. 도서관의 친구는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 활발하게 조직·운영되고 있는데, 대체로 도서관 문화가 발전하는 등 경제, 사회가 발전한 국가에서 그 활동이 활발하다. 이 그룹은 모든 관공의 도서관에 조직·운영되고 있고, 관공은 달라도 대체로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다. 즉 기금모금과 자원봉사 외에도 도서관홍보, 도서관캠페인 및 지역주민연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도서관의 친구는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고, 시민사회가 성숙되는 과정에서 지난 30년 사이에 그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도서관들도 하루 빨리 도서관의 친구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의 활용은 우리나라의 도서관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도서관의 친구는 시민들을 상대로 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함으로써, 중앙 및 지방정부 혹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이 그룹은 공식 예산외에 더 나은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시민사회로부터 모으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각종 도서관들은 도서관의 친구의 도움으로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추가 기금의 확보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기금모금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우리도 도서관의 친구와 같은 후원회 조직을 만들어 활용할 시점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즉, 우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제한되어 있다. 반면에 개인의 경제력이 향상 되면서 시민들의 기부문화는 차츰 정착되고 있다.

도서관의 친구의 자원봉사자들은 사서가 수행하는 일상적이고 단순한 도서관 업무를 도와줌으로써 사서들이 이들 업무로부터 벗어나 좀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전념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한 도서관의 친구는 도서관홍보, 도서관캠페인 그리고 지역주민연계 활동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게끔 유도할 것이다. 이처럼 도서관의 친구는 도서관의 운영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끌어들이는데 더없이 중요한 조직체가 될 것이다.

도서관의 친구는 잘 조직화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고, 또 자원봉사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는 측면에서 도서관의 자원봉사 단체와 구별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도서관 자원봉사 단체가 있지만 도서관의 친구라는 조직은 많이 없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 조직은 도서관의 친구를 시작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조직은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조직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자원봉사 조직을 도서관의 친구로 바꾸는 데는 조직의 활동 목표에 자원봉사 외에 기금모금, 도서관 홍보 및 캠페인, 지역주민연계 등의 활동들을 새롭게 추가하면 된다. ☞